**로버트 C. 뉴먼 박사, 기적, 세션 3,
과학과 기적에 대한 자유주의**

© 2024 로버트 뉴먼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기적과 예수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단원 모듈 3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든 과학과 자유주의의 발흥입니다. 그럼 그걸 한번 보러 갑시다. 우리는 르네상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 고전 작가들은 피난민들이 서방으로 피난하면서 터키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서유럽에서 재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인들은 중세 시대에 내려온 왜곡된 정보와 아랍어 번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전달된 덜 왜곡된 자료를 수정하면서 고대 작가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철학, 과학, 윤리, 역사, 정부, 의학, 수사학, 드라마, 시뿐 아니라 이교 종교와 마술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유럽 대학들에 큰 자극제가 되었고, 고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유럽인들이 중세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자신의 문화를 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또한 여러 고대 이단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이교 신앙에서 기적 이야기의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무렵에는 낮은 문해력, 지역 이교 및 세속 사회와의 혼합주의, 제도주의로 인해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 혼동되고 미혹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주의의 추진력. 이로 인해 수세기에 걸친 중세 가톨릭교의 필터를 통해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와는 달리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연구의 한 가지 결과는 중세와 현대 가톨릭의 기적이 성경의 기적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교에서는 특히 거룩한 사람들의 삶과 관련하여 기적이 계속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기적의 지속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세 과학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십시오. 중세 대학 중 일부는 물리학 분야에서 다소 인상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상의 물체의 운동에 대해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 우주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 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천문학적 추측을 알고 있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1473-1543)는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가정하면 행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이 크게 단순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새로 발명된 망원경을 최초로 하늘을 관찰하는 데 적용한 갈릴레오(1564~1642)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처럼 태양도 달도 완벽하지 않으며, 위성으로 구성된 행성계가 목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므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 주위를 돌지 않았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는 그의 멘토인 티코 브라헤(Tycho Brahe)가 수집한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행성이 실제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며 그 움직임이 여러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이작 뉴턴(1642-1727)으로 이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 한 사람인 뉴턴은 새로운 유형의 망원경을 설계했으며 유리 프리즘이 백색광을 다양한 색상의 구성 요소로 분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유형의 수학을 발명했으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적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운동 법칙과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으로 설명됩니다. 현대 시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는 숨겨진 밤이 숨어 있는 뉴턴과 자연,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대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빛이 되더라. 뉴턴의 영향. 뉴턴 자신은 아리아인, 즉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많은 사람들은 그가 율법의 관점에서 현실을 너무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이신론(Deist) 운동이, 나중에는 프랑스에서 철학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위대한 프랑스 백과사전의 저자들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신학적 자유주의의 발흥 스피노자, 흄, 칸트 이 세 사람은 기적을 거부하는 데 대한 철학적 정당성을 제공함으로써 신학적 자유주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베네딕트 스피노자, 데이비드 흄, 임마누엘 칸트. 나중에 그들의 주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네딕트 스피노자는 1632년부터 1677년까지 살았습니다. 범신론적 관점을 채택한 스피노자는 자연과 신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다른 단어이며, 자연법과 신의 법령은 마찬가지로 동일하며, 신의 법령은 불변하므로 기적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상 불가능합니다. David Hume(1711-1776)은 경험적 관점에서 기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자연법칙은 확고하고 불변하는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적은 정의상 자연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적이지 않은 설명이 훨씬 더 가능성이 없는 한,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적적인 설명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인간은 현상에만 접근할 수 있고 사물의 실제 모습에는 접근할 수 없으므로 모든 신학과 형이상학은 부당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실천 이성만이 신의 존재, 자유, 불멸성을 가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오로지 의무만을 추구하는 도덕적 종교로 이어집니다. 이신론의 한 형태인 그러한 종교는 기적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더 나은 동기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일반 사람들이 도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신학적 자유주의는 위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세력이 개신교 집단 내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첫째, 가톨릭의 기적 이야기에 대한 개신교의 반발입니다. 둘째, 불규칙하고 미신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를 과학적으로 경멸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적은 연역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귀납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철학적 느낌입니다.

넷째, 실제 종교는 계시적이라기보다 도덕적이라는 이신론적 믿음입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는 영국의 이신론과 프랑스의 무신론에 대한 보다 기독교적인 대안으로 19세기 독일에서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도덕적 성격과 성경, 특히 신약과 예수의 생애의 더 나은 가르침을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예수의 생애를 다시 쓰려는 시도, 성경 책을 수정하고, 다양한 출처와 편집자를 가정하고, 사건 이후에 예언을 기록하고, 허구의 이야기와 거짓 저자를 인정함으로써 신성한 역사의 기적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전. 자유주의의 확산. 자유주의는 다윈주의의 상당한 도움을 받아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영국과 미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대학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신학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류 교단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지적, 문화적 지도자들의 정통입니다. 그것은 또한 대부분의 오래된 선교 지역의 유사한 집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유주의의 영향. 자유주의는 미국 지도자들 사이에서만큼 대중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다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들 사이에서도 혼합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단과 뉴에이지 그룹이 그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으며, 정통 기독교인들은 자유주의에 반응하는 데 때때로 과잉 반응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과학과 신학적 자유주의의 발흥에 대한 빠른 여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적적인 것에 대한 거부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기서 우리 강의의 주제인 기적적인 것입니다. 좋아,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는데 3개였어.

네 번째는... 그게 아직 작동하지 않아요.